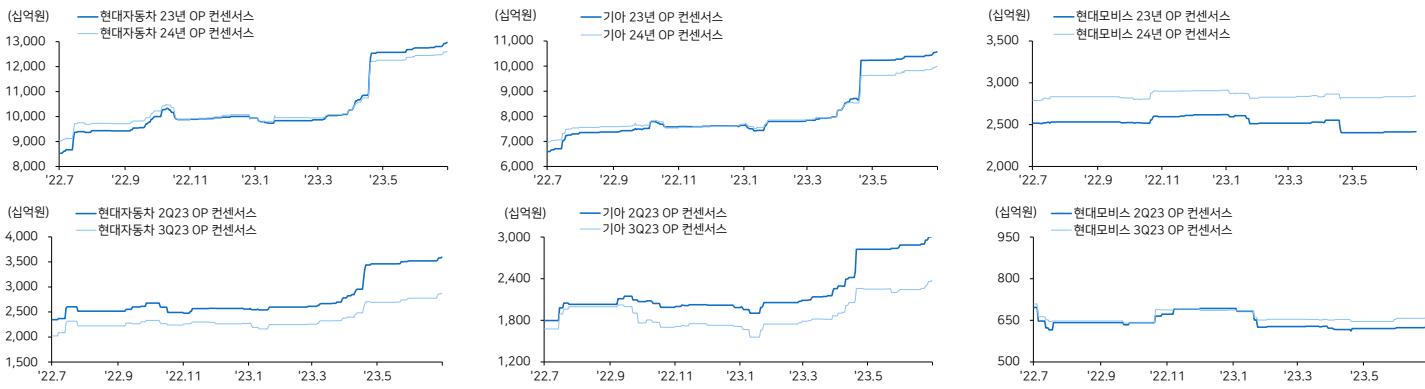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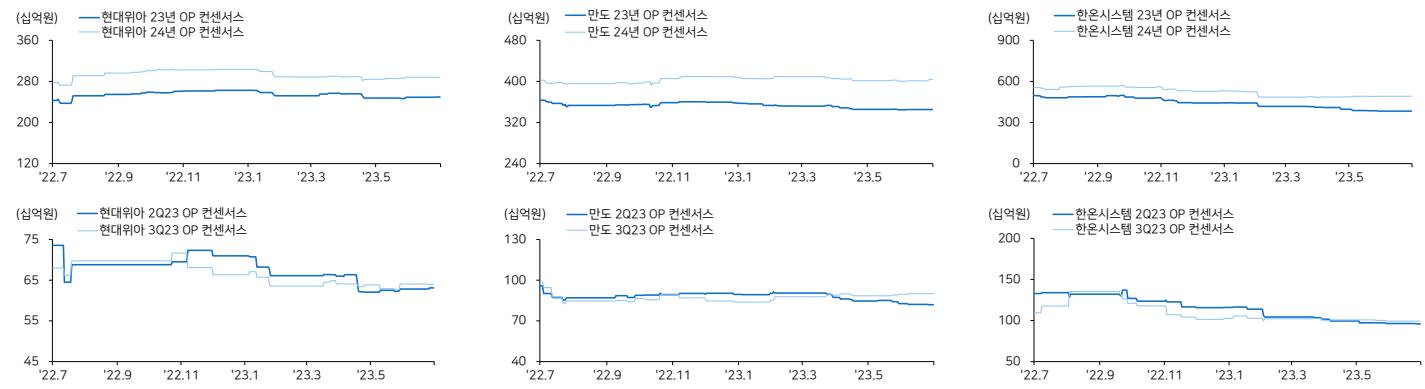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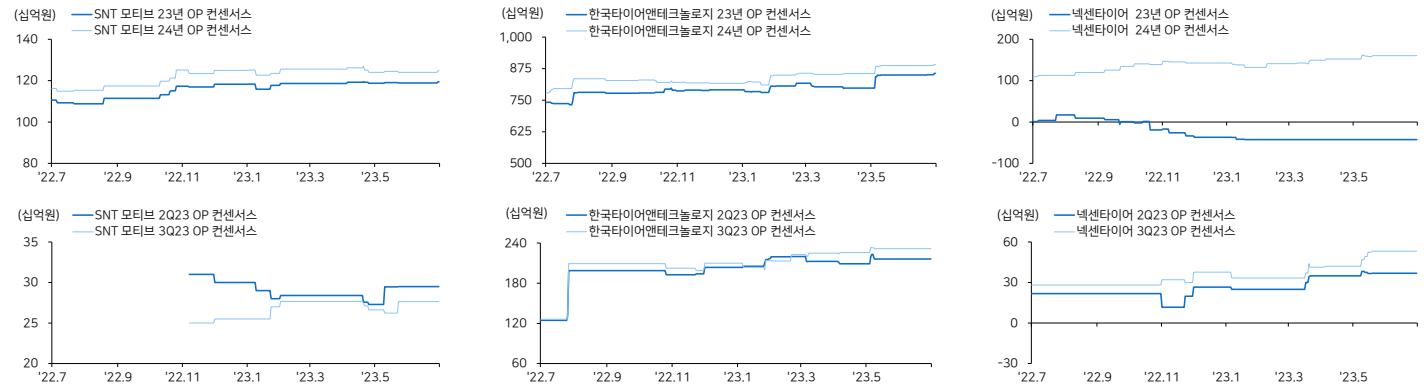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Fleet Sales Fuel First Half Auto Sales (Cox Automotive)

Cox Automotive에 따르면 6월 Fleet 판매는 YoY 44.6% 증가한 217,572대로 견조한 판매 기록. 공급 수준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Retail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렌탈, 상업, 자차체(정부) 등 다양한 Fleet 수요가 긍적으로 증가한 영향

<https://han.gl/YFbaBY>

Chinese storm looming over Europe's EV sector, Renault chairman warns (Reuters)

Jean-Dominique Senard 르노 회장은 유럽 EV 시장에 '중국 돌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 최근 중국의 갈등 및 계르마뇽의 수출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 시사

<https://han.gl/t5vfo>

Tesla Megapacks Form Big Battery System in Alaska (Tesmanian)

알래스카의 Anchorage에 위치한 24개의 Megapack으로 구성된 Tesla ESS는 15년 동안 약 1억2100만 달러를 절약 가능할 것으로 추산. 지난 6월 6,3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400Mw 규모)는 2024년 10월 가동 예정

<https://han.gl/bQeykV>

현대차, SUV · 전기차로 '中 재탈환' 시동 (한경산업)

지난해 중국 내 최악의 판매 실적을 거둔 현대차는 중국 사업 정비를 위한 점검 작업에 돌입. 공장 매각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세단에 집중된 차종을 다양화하여 올해 상반기 신규 SUV 및 프리미엄 EV로 중국 시장 재탈환 위한 출사표

<https://han.gl/QjpFPq>

기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열 ESS로 활용된다 (더구루)

기아가 독일 에너지 솔루션 업체 STABL Energy와 손잡고 태양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프로젝트 협업. 기아는 STABL Energy에 98kWh급 폐배터리 27개를 공급하여 재생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https://han.gl/ayCCji>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작 (파이낸셜뉴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함. 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능형 네트워크 무인 승용차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시범 구역에서 상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https://han.gl/b0fDDs>

벤츠도 테슬라 NACS 충전 표준에 합류 (디지털투데이)

벤츠는 2024년부터 Tesla의 NACS 충전 커넥터를 도입을 확정 지음. 벤츠는 북미 지역에 2,500개 이상의 금속 충전기가 있는 400개의 전기차 충전소 확보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벤츠 충전 네트워크에 NACS를 확장할 예정

<https://han.gl/tKDWIE>

New V4 Tesla Supercharging Station Emerges In France (InsideEVs)

올해 3월에 이어 Tesla는 유럽 내 모든 EV 메이커가 이용 가능한 V4(350kW) 스탬을 장착된 두 번째 Supercharging Station 오픈. CCS2 호환이 가능한 커넥터를 장착하여 유럽 충전 인프라 시장 확대 예고

<https://han.gl/rBfsla>

Tesla Will Reportedly Use Its Optimus Robot To Boost Sales (InsideEVs)

Tesla가 중국 매장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도입할 것이라 보도됨. Tesla는 중국 판매 대리점 내 옵티머스를 실형 배치 중이며 실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아닌 판매 및 홍보의 수단으로 도입될 가능성 높음

<https://han.gl/SeptLC>